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8.30(화)	
책 임 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 창 국(02-2100-2860)	담 당 자	오 형 록 사무관 (02-2100-2864)		

제 목 : 16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결과

- '16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 (대형은행) 1위 기업은행, 2위 신한은행
 - (소형은행)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
- 은행 기술금융은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점차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①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기준이 정착되면서 '무늬만 기술금융' 점차 축소
 - * '16상반기 전기대비 증가율 : (기술금융 대출 평가액 기준)+40.4% (잔액 기준)+27.4%
 - ② 기술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기술의존도가 높은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
 - * 기술금융 투자 총 4,620억원(자체투자 3,057억원 펀드 투자 1,563억원 / 전년대비 77.3% 증가)
 - * '16상반기 전기대비 증가율 : (이용기업 수 기준)+8.3% (초기기업 수 기준)+13.8%
 - ③ 자체 기술금융 실시 은행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기술금융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기술력 반영노력 등 기술금융 역량도 크게 확충
- 자체 기술금융 평가결과, 레벨 1에 기 진입한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은 레벨 2를, 부산·경남은행은 레벨 1 진입 승인
 - * 예비실시 단계(레벨 1) → 정식실시 단계(레벨 2 : 직전 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이내, 레벨 3 : 50%이내) → 전면실시 단계(레벨 4 : 제한없음)

1 16년 상반기 은행 기술금융 평가 개요

- '16.8.31.(수), 금융위원회는 「TECH 평가위원회」와 「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16.상반기 중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이하 "TECH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레벨 심사결과를 발표

- TECH 평가위원회 : '16년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는 종료하고 기술금융(TECH) 평가만을 실시하되 TECH 평가는 대형·소형·기타은행으로 구분하여 실시
 - * (위원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위원)금융위·금감원·금융연·TDB·기보
- 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평가역량에 대해 신청 은행을 대상으로 심의
 - * TDB가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2 16년 상반기 은행 TECH 평가결과

- (평가 결과) 대형은행 그룹에서 기업은행이(82.6점/100점 만점) '16.상 기술금융 실적 1위를 차지하고 신한은행(69.0점)이 2위를 차지
 - 소형은행 그룹에서는 부산은행(78.6점)이 1위, 경남은행(66.2점)이 2위를 차지

< 은행별 그룹 구분 >

대형은행 그룹	소형은행 그룹	기타은행 그룹
국민, 신한, 우리, 기업, KEB하나, 농협	씨티, SC,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제주, 산업, 수출입

- * '16.상반기 평가시부터 은행간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은행, 중기대출이 주업무가 아니거나 곤란한 기타은행 그룹으로 개편('16.2월)
- 기업은행은 모든 세부지표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소형은행 그룹에서는 부산은행이 기술금융 공급 및 투자 규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4반기 연속 1위
-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신규기업 발굴, 신용대출 비중 등 기술금융 질적 측면(신한)과 리스크관리 및 시스템 등 지원역량 측면(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2위를 차지

<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

구 분	제1차('14.하)	제2차('15.상)	제3차('15.하)	제4차('16.상)
대형은행	1위 신한	국민	신한	기업
	2위 우리	신한	KEB하나	신한
소형은행	1위 부산	부산	부산	부산
	2위 대구	대구	경남	경남

- * 기업은행은 '15년까지 특수은행 그룹(산업·수출입·기업)에 포함
→ '16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 그룹에서 경쟁

□ (총 평) 은행 기술금융은 점차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❶ 실질적 기술금융 증액분만을 토대로 하는 **기술금융대출 평가액**이 크게 확대되면서 종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기술금융’ 축소**
- ❷ 대출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의존도가 높은 **초기기업** 중심의 지원이 강화
- ❸ 자체 기술금융 실시 은행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기술금융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기술금융 역량**이 크게 **확충**

□ (정량평가 분석) 기술금융이 정착·안정화 단계에 진입되는 모습

❶ (대 출) 「기술금융대출 평가액*」이 기술금융 대출잔액 증가율을 상회

* 기간연장, 단순대환 등을 제외하고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규기업 대출 및 증액대출 등 기술금융 대출 증액분만 실적으로 인정('15.하반기)

- 기존 기술금융 대출잔액 기준은 기존 거래기업의 대출을 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잔액을 확대할 여지가 있으나,
 - 평가액 기준은 신규대출, 대출 증액분 등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증가분이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명확한 평가가 가능
- 기술력 심사를 통한 대출 증액만을 반영한 평가액이 잔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기술금융이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냄

	평가액		잔 액*	
	증가액	(전기대비 증가율)	증가액	(전기대비 증가율)
'15.하반기	14.7조원	+(82.5%)	18.8조원	+(44.9%)
'16.상반기	13.2조원	+(40.4%)	16.7조원	+(27.4%)

* 잔액 : 기존 거래기업의 기간연장, 단순대환 등이 포함된 금액

❷ (투 자) 금년들어 **기술금융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 자체 기술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

- 직접투자 3,057억원, 기술금융 펀드 투자 1,563억원 등 기술금융 **총 투자액은 4,620억원** ('15말, 2,599억 → '16.6말, 4,620억 / 전년대비 + 2,011억원 증가, 증가율 +77.3% 수준)

○ 특히 '16.상반기 중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15말, 1,864억 → '16.6말, 3,057억 / 전년대비 +1,193억원↑, 증가율 +64%↑)

❸ (초기기업 지원) 초기기업(창업 7년 이내) 차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초기기업 지원기능**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기술금융 이용기업		초기기업	
	차주수	(전기대비 증가율)	차주수	(전기대비 증가율)
'15.하반기	40,705개	+(16.1%)	13,329	+(1.8%)
'16.상반기	44,082개	+(8.3%)	15,163	+(13.8%)

□ (정성평가 분석)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기술금융 역량**이 **확충**

○ 은행 내 기술금융 전문인력*이 **64명**('15말)에서 **76명**('16.6)으로 **12명 증가**

* 변리사·기술사, 연구소 3년이상 경력 연구원, 기술평가 2년이상 경력자 등

○ 기술금융 대출 관련 정기·수시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완료**

○ 아울러, **TCB 평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금리·한도** 등을 우대하여 **여신 프로세스 내 기술력 반영**을 강화

* 기술금융 대출은 일반 중기대출 대비 금리가 평균 0.22%p 낮은 수준('16.6월)

3 은행 자체 기술금융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은행의 기술금융 정착정도에 따라 기술금융 예비실시 단계인 「레벨 1」 수준의 **6개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 「레벨 2」를, 부산·경남은행은 「레벨 1」 신청

○ 심사결과, 신청은행은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한 레벨을 승인

【기술금융 정착 로드맵('15.8.27.) 주요 내용】

- ◇ 은행이 외부 TCB가 아닌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금융 대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이행전략을 마련
- ◇ 이행전략은 총 4단계로 구성 : 예비실시(레벨 1) → 정식실시(레벨2 :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이내·레벨3 : 50%이내) → 전면실시(레벨4 : 제한없음)

□ (지표별 평가) 전문인력 등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독자적 평가모형과 신뢰도 높은 평가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남

❶ (전문인력) 6개은행은 박사·변리사·기술평가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로 10명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부산·경남은행은 박사급 인력으로 5명의 전문인력 구성

구 분		Level 2						Level 1	
		산 업	신 한	우 리	하 나	기 업	국 민	부 산	경 남
전문 인력 ^{주)}	A	2명 (박사1, 기술사1)	9명 (박사2, 변리사7)	9명 (박사2, 변리사6, 기술사1)	8명 (박사3, 변리사3, 기술사2)	8명 (박사5, 변리사2, 기술사1)	7명 (박사5, 변리사1, 기술사1)	5명 (박사4, 변리사1)	5명 (박사5)
	B	2명	-	-	2명	6명	3명	-	-
	C	17명	1명	2명	-	-	-	-	-
	(前기)	(21명)	(7명)	(7명)	(7명)	(12명)	(10명)	(-)	(-)
심사결과		21명	10명	11명	10명	14명	10명	5명	5명

주) 전문인력구분 : A. 자연계열박사, 변리사, 기술사, 신용평가사1급 B. 연구소근무연구원 (경력3년 이상), C. 2년이상 기술평가업무중장사경력자 및 경력3년이상 기술거래사

❷ (평가모형) 업력·업종 등으로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운용 중

- (기술 등급 : T등급) 은행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력별·업종별로 특화된 기술등급(T 등급)체계를 운용

구 분	Level 2						Level 1	
	산 업	신 한	우 리	하 나	기 업	국 민	부 산	경 남
T등급 전체	15	3	5	6	단일	6	8	8
업력별	3	단일	단일	2	단일	2	2	2
업종별	5	3	5	3	단일	3	4	4

- (기술신용등급 : TCB등급)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술력 평가 비중을 높여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은행	결합 모형 개수	상세
우리	단일 모형	• 단일 결합비율(30:70)
산업·기업	2개 모형	• 외감(30:70), 비외감(30:70)
신한, 국민	3개 모형	• 외감(20:80), 비외감(30:70), 소호(40:60)
하나		• 외감(30:70), 비외감(35:65), 소매(40:60)
부산, 경남		• 외감(30:70), 비외감(35:65), 소규모(40:60)

❸ (평가서 신뢰도) 은행이 자체 작성한 평가서의 품질, 평가등급 적정성 등 신뢰도 점검 결과 모든 은행이 양호한 평가를 받음

* 평가서 신뢰도 심사기준은 (Lv1)70점 이상 60%, (Lv2) 70점이상 70% 수준

- 평가서 품질이 부족한 은행의 경우 은행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평가결과 통보와 이에 대한 TDB 컨설팅 실시 예정

4 평 가

□ '14.7월 시작된 기술금융 대출은 '무늬만 기술금융' 축소 등으로 빠른 속도로 양적·질적으로 내실화되는 모습을 보임

○ '16.6월말 현재 기술금융 대출은 45.7조원(평가액 기준) 공급되는 등 기술금융이 기술기업에게 중요한 자금조달 경로로 자리 매김

- '16.상반기 중 13.2조원을 공급하여 연내 약 20조원 공급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전망

* 기술금융 대출 공급 목표 : ('15년)32.6조원 → ('16년)50조원 → ('19)100조원

< 기술금융 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계	'14년 소계	'15년 소계	'15.上	'15.下	'16.上
기술금융 대출 평가액 기준	45.7	4.7	27.9	13.1	14.8	13.2
기술금융 대출 잔액 기준	77.3	8.9	51.7	32.9	18.8	16.7

○ '16.3월, 시작된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기초한 대출도 금년 중 약 1.5조원 공급될 전망 (전체 기술금융 대출의 7.5% 수준)

* 자체 기술신용평가 Lv.2가 승인된 6개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KEB하나)의 '16.하반기 자체 기술신용평가 기반 기술금융 대출 예상 금액

□ 특히, 금년들어 기술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 투자용 기술신용평가 모형개발(4.1일) 등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

○ 하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펀드 추가로 조성할 예정

< 기술금융 투자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5년	'16.상	'17년	'18년	'19년
펀드 조성규모	6,570	6,570	8,500	9,300	10,000
투자 집행	735	1,563	-	-	-
직접 투자	1,864	3,057	-	-	-

□ 6개 은행(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이 「레벨 2」 진입하고 부산·경남은행이 「레벨 1」에 진입함에 따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기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한 기술금융의 여신시스템으로 내재화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기술신용평가의 필수적인 TDB 정보 개선을 적극 추진

○ 기술신용평가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인력을 연내 1,000명 이상 육성하고 금융기관 대상 기술금융 교육과정 실시 예정

* ('16.4.)제1회 시험 : 528명 합격(응시자 802명, 합격률 65.8%), ('16.8.29.)제2회 시험

○ TDB의 DB 체계를 기술금융 대출 심사·평가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단위 → 기업단위로 기술정보를 개선*

* 기업 조회시 기업의 보유 기술력(IP, 기술력 인증·수상경력 등)을 확인 가능

5 향후 추진계획

가. 기술금융 평가 관련 후속조치

□ 기술금융 우수 은행사례(Best Practice)에 대한 은행권 전파를 통해 기술금융 확산과 활성화 유도 (4분기)

* 평가를 실시한 금융연 및 TDB가 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은행에 전파

□ 은행권 기술금융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TDB의 기술금융 정보를 양적·질적으로 확대 (4분기)

○ (현 행) 차주별 기술금융 대출 잔액정보 제공

→ (개 선) 차주의 계좌별 정보 집중을 통해 연체율 등 분석 강화

* 차주의 계좌별 정보로 기술금융 대출 개시 및 상환 시점, 사고시점 등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별·차주 특성별 리스크 분석 가능

나. 기술금융 제도개선 추진

□ TECH 평가 개선, 인센티브 체계, TCB 평가 수요 확대 등 기술금융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하반기)

① (TECH 평가) 은행별 순위 고착화, 평가대상 기간, 초소액·초단기 기술금융 대출 방지 등을 위해 TECH 평가지표 개선 적극 추진

② (인센티브 체계) 신·기보 출연료 등 기존 인센티브 체계를 합리화 하고 효과적 기술금융 유인을 제공하는 추가 인센티브 발굴

③ (TCB 평가) TCB 평가서가 은행 대출만이 아닌 정부 R&D·조달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 기술금융 만족도 및 FGI 조사결과*(9월) 등을 통해 현장의 제도 개선 수요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적극 반영할 예정

* (수행기관)갭업, (조사대상)기술금융 이용기업, VC, 은행 지점장 등 기술금융 수요자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다)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위주의 기존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마련

※ 기술신용평가 = 기술평가(40%) + 신용평가(60%)

- 기술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담보없이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공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

□ (주요 추진성과)

① '14.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 후 '14.6월,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 기술정보DB(Tech Data Base, TDB)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TCB)

② '14.7월,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시

③ '15.6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 정착 및 외연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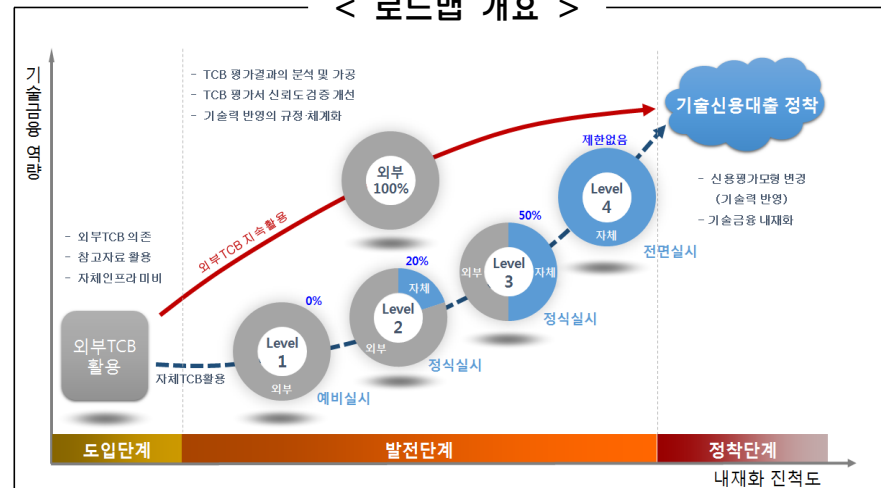
④ '15.8월,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방안을 담은 '기술금융 대출 정착 로드맵' 발표

⑤ '15.12월, VC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모형 개발

참고 2

기술금융 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 로드맵 개요 >



☐ (추진목적) 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서 자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 ①전문인력 수, ②평가서 수준, ③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④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 (인센티브)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 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 기술금융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 (레벨2)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 → (레벨3) 50% → (레벨4) 제한없음

- TCB평가 업무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금융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3

기술금융 대출 평가액 추이 및 은행별 규모 (‘16.6월말 기준)

□ 기술금융 대출 평가액 규모 : 45.7조원

구 분	계	‘14년 소계	‘15년 소계	‘15.上	‘15.下	‘16.上
기술금융대출 평가액	45.7	4.7	27.9	13.1	14.8	13.2
기술금융대출 공급액	77.3	8.9	51.7	32.9	18.8	16.7

※ (기술금융대출 평가액) 기술신용대출 공급액 중 신규 및 증액대출을 통해 실제 기업에 자금공급이 증가한 규모(기간연장, 단순대환 등 제외)

□ 은행별 기술금융 대출 규모(누적)

(단위: 건, 억원)		건수	잔액	평가액
대형 은행	기업	37,028	207,743	115,970
	신한	31,999	128,621	80,076
	국민	27,200	110,055	65,882
	우리	17,320	92,101	60,868
	KEB하나	17,840	89,293	45,861
	농협	7,491	36,662	27,289
소형 은행	부산	4,907	28,792	16,126
	대구	4,235	21,314	12,392
	경남	3,315	16,977	10,282
	광주	1,050	4,336	2,557
	씨티	739	4,999	4,060
	SC	334	2,704	1,090
	수협	219	2,716	1,731
	전북	176	353	138
기타 은행	산업	1,699	24,131	12,036
	수출입	82	1,459	759
	제주	101	399	336
합 계		155,735	77.3조원	45.7조원

참고 4

기술금융 대출 잔액 및 평가액 개념

□ (기술금융 대출 잔액) 은행권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평가(TCB 평가를 받은 대출

- ① 기존 거래기업의 대출이 TCB 평가를 받은 경우(증액 한도 없음)
- ② TCB 평가를 통해 한도 증액 받거나, 신규 거래기업 중 TCB 평가를 받은 대출

□ (기술금융 평가액) “무늬만 기술금융”(기존 대출에서 형식적으로 TCB 평가를 받은 대출) 차단을 위해 ‘15.6월 평가액 정의 신설

- ① 기존 거래기업 기술신용대출 전환시 일반대출 기존한도는 제외 하고 ‘한도증액분’만 포함
- ② 한도증액 없이 금리조정·만기연장 등만 있는 제약정, 만기연장, 대환 등은 실적집계에서 제외

< 기술금융 대출 주요 개념 비교 >

